

혼인 잔치의 초대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22:1-10] 예수님께서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6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7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8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 그런즉 너희는 큰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10 이에 그 종들이 큰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보자면,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시요,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왕의 하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요,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서 혼인하게 되는 잔치를 일컬음입니다. 이 혼인 잔치는 메시아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왕국에서 거행되는데,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시대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표현하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온 세계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우선 자신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잔치 초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초청 대상을 온 세상 백성들로 확장하셨고,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분에게 반역하는 악한 태도를 보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공정한 응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친절하심을 표현합니다.

왕께서는 성대한 혼인 잔치를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하셨고, 자신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 잔치에 와서 함께 즐기라고 무료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한 마을에 혼인이 있게 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한 주일동안 축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을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을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하물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보낸 초대장을 무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무례한 거절 행위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관저에서 거행할 혼인 잔치에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무시하고 거절하겠습니까?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은 왕의 초대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왕께서는 여러번 종들을 보내어 그들의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왕이 그 백성에게 그렇게 낮은 자세로 초대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고집을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번 복음의 초대를 주시는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두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악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왕의 초대를 거부해도 된다고 경홀이 여기면서 농사일이나 상업일 등을 핑계로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부류는, 왕의 종들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수 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악하게 대하고 죽였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침례자 요한도 죽였고, 머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 비유는 사람들의 악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아서 자신에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배반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그러한 사악한 자기 백성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응징의 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7]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마태복음의 바로 다음 장인 23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그 백성들의 사악한 태도를 한탄하심에 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38 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왕국의 군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고 파괴하고 불태우며, 백성들을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응징으로 그들의 배반에 대하여 처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7-39]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응징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22:7 절.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이 도시, 즉 예루살렘의 철저한 불태움과 파괴는 예수님의 승천후 35 년 뒤인 서기 70 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행해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백만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20 세기에 이를 때까지 황폐한 땅, 백성이 온세상에 흩어진 땅이 되어 “버림받아 황폐한 땅 [23:38 절]”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응징은 하나님께서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22:8 절]”는 한탄의 결과인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응징에 이어서 복음의 초대의 문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아직도 복음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게될 것은 “결혼식에 손님들로 가득하더라 [22: 10 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한 모든 악한 자들에게 최종으로 응징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응징의 규모와 정도는 서기 70 년 예루살렘의 파괴와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21-22]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 할수 없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분의 친절한 초대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꼭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명백히 보여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기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양의 혼인 예식이 열릴 때에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될 교회의 일원으로 그분과 함께 혼인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초대를 받아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그들도 이 훌륭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사랑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South Korea: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